

2023학년도 10월 정경대학 다람쥐 모의평가

출제 방향

2022. 10.

출제진

윤준수(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민경서(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검토진

김윤재

김호진

송유림(이화여자대학교 의예과)

유찬혁(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장현서(무원고등학교)

정선우(대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정성욱(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정경대학 다람쥐

I. 출제의 기본 방향

2023학년도 10월 정경대학 다람쥐 모의평가는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출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 측정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였습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사회과 평가목표에 충실하여 평가원과의 간극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타당도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하여 이미 출제되었던 내용일지라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문항의 형태, 발상, 접근 방식 등을 다소 수정하여 출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치와 법 교과와 특성을 바탕으로 평가원이 출제 시 고려하는 평가 요소인 개념 및 원리의 이해,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평가, 가치 판단 및 의사 결정, 문제 파악 및 인식의 6가지 항목을 고르게 분배하여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각 문항은 교육 과정상의 중요도, 사고 수준, 문항의 난이도 및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배점하였습니다.

넷째, 올해 출제된 평가원 모의평가와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난이도 측면에서는 정치와 법 과목을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평가원의 출제 지침에 맞지 않는 문항이나 내용이 있다면 과감히 삭제·수정하여 더 좋은 양질의 문항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기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등장하지 않던 유형이라 하더라도 개념을 통한 고차원적 사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여 새로운 유형에 대한 대비 능력 또한 길러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II. 출제 범위 및 문항 유형

1. 출제 범위

출제 범위는 ‘정치와 법’ 과목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 맞추었습니다. 문항의 소재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및 이와 연계된 시사적인 내용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2. 문항 유형

2023학년도 10월 정경대학 다람쥐 모의평가에서는 시사적인 소재들을 활용하여 개념 및 원리의 이해,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평가, 가치 판단 및 의사 결정, 문제 파악 인식의 6가지 평가 요소를 골고루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문항 유형 출제 단원	개념 및 원리의 이해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평가	가치 판단 및 의사 결정	문제 파악 및 인식
민주주의와 헌법	1	9			2	4
민주 국가와 정부		10	5, 7, 8			
정치 과정과 참여			6, 20			3
개인 생활과 법				12, 13, 16		11
사회생활과 법		14		15, 17		
국제 관계와 한반도	19				18	

Ⅲ.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 및 난이도 구성

1.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해당 시험지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학문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거나 시사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출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연계교재에 존재하는 세부적인 개념이 킬러 선지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하여 시험장에서 세부 개념으로 인해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문항을 개발하였습니다.

2. 난이도 구성

수능 직전이라는 시기를 고려하여 올해 수능 난이도로 예측되는 난이도로 구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선거 결과 분석 문제의 경우 기출에 출제된 유형과 기출에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을 융합하여 새로운 유형에 대한 적용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올해 표본 수준을 고려하여 자료 분석형 문항의 출제 비율을 높여 시간 압박을 주는 동시에, 연계 교재에 있는 세부적인 개념을 다수 활용하여 선지에 대한 판단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보다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예상 등급컷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와 법 수험생을 기준으로 예상 1등급 컷은 46점으로 예측합니다. 선거 결과 분석 문제가 어렵고, 일부 문항의 경우 연계교재에 있는 세부적인 개념까지도 묻고 있어, 상대적으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상 등급 컷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	예상 등급 컷
1	46
2	42
3	37
4	30

4. 문항별 예상 오답률

2023학년도 10월 정경대학 다람쥐 모의평가의 문항별 예상 오답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문항 번호(출제 요소)	예상 오답률
1	20(선거 결과 분석)	75%
2	12(가족 관계와 법)	70%
3	9(기본권)	65%
4	17(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65%
5	10(정부 형태)	60%
6	8(지방 자치)	60%
7	13(미성년자의 계약)	60%
8	14(범죄 성립 요건)	55%
9	5(헌법 기관)	45%
10	15(근로자의 권리 보호)	45%

- 1등급 변별 문항은 빨간색, 2등급 변별 문항은 파란색, 3등급 변별 문항은 진한 검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같은 예상 오답률의 경우 더 오답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문항 순대로 배치하였습니다.

IV. 검토진 운영

1. 검토 및 반영 기간

1차 검토 : 10/21 16:00 - 10/22 23:59
1차 반영 : - 10/23 16:00
2차 검토 : 10/23 16:00 - 10/23 23:59
2차 반영 : - 10/24 03:00
3차 검토 : 10/24 03:00 - 10/24 23:59
3차 반영 : - 10/25 11:00
4차 검토 : 10/25 11:00 - 10/25 23:59
4차 반영 : - 10/26 12:00
출제진 최종 검토 및 반영 : - 10/27 23:00

2. 검토 방식

각 문항에 대한 난이도, 퀄리티 평가와 더불어 각 문항의 총평과 오류 내역을 적어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의고사 1세트에 대한 총평도 함께 적도록 하여 개별 문항과 문제지 세트에 대한 구성 측면에서의 완결성과 퀄리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V. 연계 문항

2 다음 글의 우리나라 국가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헌법은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사하도록 몇 가지 통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우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써 해야 하는데, 그 문서에는 대통령의 서명에 이어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A]와/과 관계 국무 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 국민 투표안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B]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헌법 재판소장 임명과 같은 주요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C]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① A는 대통령에 대하여 국무 위원 임명 제청권을 가진다.
- ② B의 의결은 대통령을 구속한다.
- ③ B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최고 심의 기관이다.
- ④ A와 C는 모두 대통령에게 국무 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⑤ C의 구성원은 B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2023 수능특강 54p 수능 실전 문제 2번

5. 우리나라 헌법 기관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A는 국가 원수인 B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다. 이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은 6개월 이내에 C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 D의 부의장인 E는 최근 B에게 갑을 ○○부장관으로 임명할 것을 제청하였다.

- ① A는 B가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의결하기 위해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한다.
- ② B는 국가 원수의 권한으로 A가 제정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B의 주요 권한 행사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D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C의 모든 재판관은 A의 동의를 얻어 B가 임명한다.
- ⑤ A의 구성원과 E는 모두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2023학년도 10월 정경대학 다람쥐 모의평가 5번

제시문에서 새로 도출된 수능특강 날개 개념을 활용하여 선지로 구성하는 등, 연계 교재의 내용을 문항에 담았습니다.

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시장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자 주민들은 지역 특산물 산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시 의회는 주민들이 제출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 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시의 시장이 여성에 대한 성희롱 혐의가 있는 사람을 ㉣□□시 △△구의 구청장으로 임명하고, ㉤△△구청장과 함께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하자 □□시 시장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기 위해 관할 선거 관리 위원회에 ㉥주민 소환 투표의 실시를 청구하였다.

- ① ㉠은 ㉡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과 ㉡의 의원은 모두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가입이 금지된다.
- ③ ㉢은 광역 자치 단체, ㉣은 기초 자치 단체이다.
- ④ ㉤은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가)와 달리 (나)에 나타나 있는 주민 참여 제도는 대표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 2023 수능특강 62p 수능 실전 문제 2번

8.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시의 시장이 임명한 ㉡△△구청장은 자원 재활용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 대부분의 의사에 반대되는 활동을 하였다.
- ㉢○○시장은, ㉣○○시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안이 자신이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과 상반된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보 기>

- ㄱ. ㉠에 대한 선거 소송은 2심제로 진행된다.
- ㄴ. ㉡은 주민 소환 제도를 통해 임기 중 해임될 수 있다.
- ㄷ. ㉣은 ○○시의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권을 통해 ㉤을 견제할 수 있다.
- ㄹ. ㉢과 ㉣은 모두 ㉤의 제·개정 권한을 가진다.

△ 2023학년도 10월 정경대학 다람쥐 모의평가 8번

올해 연계교재에서 처음 등장한 일반구와 자치구의 개념을 활용하여, 선거 소송의 심급제와 함께 주민 소환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묻고자 하였습니다.

3 표는 기본권 유형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질문	A	B	C
(가)	예	㉠	예
적극적 권리에 해당하는가?	㉡	아니요	예
자본주의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로 등장한 기본권인가?	㉢	아니요	아니요

- ① A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② B는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받기 위한 권리이다.
- ③ C는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④ (가)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가?'가 들어가면, ㉠에는 '아니요'가 들어간다.
- ⑤ ㉡에는 '아니요', ㉢에는 '예'가 들어간다.

△ 2023 수능특강 33p 수능 실전 문제 3번

9.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중 하나임.) [3점]

표는 서로 다른 기본권 A~C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응답 및 옳은 응답 수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 갑은 1개 질문에 대해서만 옳게 답하였다.				
질문	응답			옳은 응답 수
	갑	을	병	
A는 국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인가?	예	아니요	㉠	2개
B는 국가에 의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인가?	예	아니요	아니요	㉡
C는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능동적 기본권인가?	아니요	예	예	2개
(가)	아니요	예	예	1개

- ① ㉠은 '예'이다.
- ② ㉡은 '1개'이다.
- ③ A는 B와 달리 입법자가 법률을 통해 기본권을 구체화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④ B는 C와 달리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는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본질적 권리이다.
- ⑤ (가)에 'A와 C는 모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2023학년도 10월 정경대학 다람쥐 모의평가 9번

연계교재에서 출제된 자료를 발전시켜, 각 기본권이 어떠한 기본권인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2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에서는 2015년 12월에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A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되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 2018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T+1대 의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는 표와 같다.

(단위: 석)

정당	A당	B당	C당	D당	계
의석수	112	156	27	5	300
T대 의회 대비 증감 의석수	-48	+46	+7	-5	0

단, 갑국에서 의회 총의석수는 300석이고, 행정부 수반과 의회 의원의 임기는 모두 4년으로 같다. 행정부 수반과 의회 의원 중 당적을 바꾸는 사람은 없고, 의회 내 정당별 의석수는 해당 의회 임기 내에서 변동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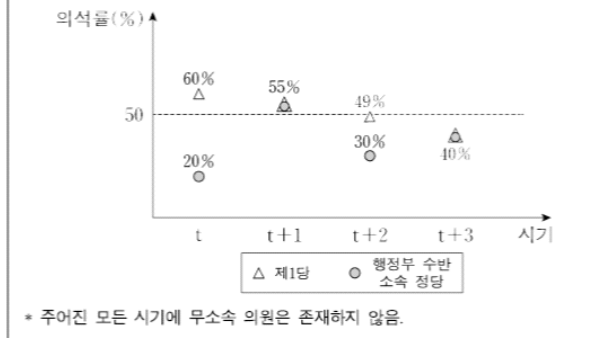
보기

- ㄱ. 갑국의 정부 형태는 권력 분립형이 아닌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이다.
- ㄴ. 갑국의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가 의회가 아닌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
- ㄷ. T대 의회와 T+1대 의회에서 모두 여소야대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 ㄹ. 행정부 수반이 추진하는 정책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은 2017년보다 2018년이 높다.

△ 2023 수능특강 44p 수능 실전 문제 2번

1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다음은 모든 시기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의 정치 상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갑국에서 여소야대는 2번 나타났고 갑국의 정부 형태는 제시된 시기 중 두 번 변경되었으며, t시기와 t+1시기의 정부 형태는 서로 다르다.



<보기>

- ㄱ. t시기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서 선출된다.
- ㄴ. t+3시기 갑국의 의회는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 ㄷ. t+1시기는 t+2시기에 비해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 ㄹ. t+2시기와 t+3시기 모두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023학년도 10월 정경대학 다람쥐 모의평가 10번

연계교재의 정부 형태 분석 방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자료로 분석을 요구하였습니다.

5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회사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인 갑이 ㉠해고를 당하자 A 회사를 상대로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 지방 노동 위원회는 A 회사에 구제 명령을 하였다.

↓
...(중략)...

A 회사는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하였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

【 보기 】
 가. A 회사 노동조합이 판단한 ㉠의 사유는 직원 간 성희롱일 수 있다.
 나. ㉡은 A 회사가 신청하였다.
 다. ㉢에서 피고는 A 회사 노동조합이다.
 라. 부당 노동 행위 인정 여부에 대한 ㉡과 ㉢의 판정 결과는 일치하였다.

△ 2023 수능특강 155p 수능 실전 문제 5번

15.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인 갑은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체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A 회사의 대표인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 회사의 노동조합은 적법하게 ㉠쟁의 행위를 진행하였다. 이후 A 회사는 갑을 해고하였는데, 갑은 A 회사가 자신이 쟁의 행위를 주도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며,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 노동 위원회는 지방 노동 위원회와 달리 A 회사의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A 회사는 행정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보 기>—
 가. ㉠은 근로자 측과 달리 사용자 측은 할 수 없다.
 나. A 회사의 노동조합은 적법하게 ㉠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에 재심을 신청한 주체는 갑 측이다.
 라. ㉢에서 원고는 A 회사이고 피고는 갑이다.

△ 2023학년도 10월 정경대학 다람쥐 모의평가 15번

연계교재에 출제된 문제의 유형을 제시문형으로 바꾸어 출제하였으나, 사실상 연계 교재의 문제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ㄱ선지의 경우 쟁의 행위에 대한 수능특강 날개 부분의 개념을 활용하여 출제하여 연계 개념을 통해 변별력을 키우고자 하였습니다.

04 국제법의 법원(法源)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

A는 국가나 국제기구를 당사자로 하여 이루어지는 명시적 합의로서, 통상적으로 당사자에 대해서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이와 달리 오랜 기간 국제 사회에서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에 의해 국제 사회에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된 B는 C와 같이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 ① 우리나라에서 A의 체결·비준은 국회의 권한이다.
- ② B의 사례로 '기후 변화 협약'을 들 수 있다.
- ③ C의 사례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들 수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한다.
- ⑤ A는 B, C와 달리 국제 사회에서 국제기구에 의해 강제적으로 집행된다.

△ 2023 수능특강 164p 수능 기본 문제 4번

19. 국제법의 법원(法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하는 A는 국제법 주체 간 구속력 있는 합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오늘날의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되고 있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야 하는 B의 형성에는 일정한 시간을 요구하는데, 국제교류가 급증하고 그 대상 범위가 급속히 확장되는 현대에서 새로운 분야에서 B의 형성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 ① 우리나라에서 A의 체결·비준 권한은 국회의 권한이다.
- ② B의 예시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들 수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④ B는 A와 달리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국제 사회에서 3개 이상의 국가에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 2023학년도 10월 정경대학 다람쥐 모의평가 19번

연계교재와 제시문은 다르지만, 각 법원(法源)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힌트는 유사하게 구성하여 연계하였습니다.